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 제사장 나라를 삼는 사실과 재림 때 상황

2013. 01. 2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광경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실상을 계시해 주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5~8]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출19:5,6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답: 예,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출19:4~8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출19:4~8]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7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감사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행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강조한 말은 “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열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표현을 잘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밑에까지 오는 데는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시며 안으셔서

인도하신 것이지요.(사63:9)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내 말과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대답할 말은 분명하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답이 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구원에 대한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 당연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지요?

답: 당연히 맞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스스로 준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구해야 옳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는 대답은 그들 스스로 그 말씀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대답이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수행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뢰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서 성취시키는 공로자들이 되지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3.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신 것입니까?

답: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에서 쉬게 하시며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해보아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하여 철저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기록입니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아셨지요. 그러면서도 굳이 그렇게 행하지 못할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답: 심술이라는 말이 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네요. 심술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그 명령을 준행한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결국 실패할 때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손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여주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답: 그 대답이 바로 계시록 1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했지요. 출19:5,6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서 성취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지 않았으면 출19:5,6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이를 수도 없었지요. 계1:5,6절, 같은 말씀이 5:10에도 있는데, 이것은 출19:5,6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6. 예, 그렇게 되는군요.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답: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지요. 그것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롬3:20)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 번 읽어봅시다. 갈3:10~14

[갈3:10~14]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율법을 지키는 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저주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말입니다. 로마서에는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8장 7,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대로 사람들은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 자의 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옛 이스라엘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을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표상하는 사건이었고,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구주를 통하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어야 바른 대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7. 목사님,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바로 구원복음의 핵심 내용을 드러낸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실을 말씀하셨군요.

답: 예, 참 장엄한 광경입니다.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행1:11)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1:7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신약 여러 곳에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마24장 30절과 26장 64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도 행전에서는 올라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구름타고 올라가셨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저런 구름이라도 타고 오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답: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마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막8:38)고 했으며,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살후1:7)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에 구름은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타나나는 것을 말했잖아요. 흰옷 입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옹위했을 때 그 모습이 구름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은 또 불꽃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꽃 중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랍천사가 있는데(사6:2) 스랍이라는 말이 불꽃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수께서는 친히 삼중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9:26) 이 영광은 사람들의 눈에 불꽃으로 보일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에 떠있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기보다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천사들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들이거든요.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삼하22:11, 시18:10) 또 에스겔 1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임하시는 광경을 계시 중에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기록을 종합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천사들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은 차라리 구름과 함께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에르케타이 메타 톤 에펠론”인데, “오시리라 함께 그 구름들과”거든요. 아무튼 천사들과 함께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9. 예수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이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구절이 좀 난해한 것은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답: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은 아마도 굉장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4절에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장차오실 자로 계시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읽은 누가복음 9:26에는 아버지와 자기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중 영광으로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까(살전4:16) 정말 우주적 사건이요 우주적 행렬이지요. 아마도 온 우주가 구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지구에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볼 것입니다. 그것을 각인의 눈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지만 이편이나 저편이나 지구에 숨 쉬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그 굉장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광경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24장 30절에서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족속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고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계시록 6:15~17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볼까요?

[계6:15~17]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 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린양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 받을 것이니까 공포와 절망으로 우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거절했으나 이제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어린양의 진노가 왜 이르는지는 롬1:18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 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진리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잘못 아는 그것으로 바른 진리를 깨닫는 일을 방해했다면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은 그날에 애통하는 무리 중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겠지요. 지금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검증된 진리로 신앙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0.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본다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답: 예, 그렇군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많지요. 우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 현실적 체별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씌운 사람들도 해당되고, 채찍질한 사람들도 해당되겠지요. 그보다 더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죄한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지요.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직접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26:63,64이지요.

[마26:63,64]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저를 찌른 자들 중에는 가야바와 당시의 공회의원들도 있겠지요. 이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보려면 부활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나 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부활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외치겠지요. “아, 정말 그가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구나!”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11. 그런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답: 예, 다니엘 12:1,2절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단12:1,2]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선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깬다는 말이 부활에 대한 말인데, 그 중에 영생 얻는 자와 무궁한 수욕을 받을 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모든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이** 깨어납니다. “**많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수욕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역대에 예수교를 극심히 핍박한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 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반드시 씹니다. 그리고 애곡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24:30절 말씀과 같은 말이지요.

12.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극도로 핍박한 사람들도 포함되는군요.(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결코 포함되지 않도록 올바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꼭 맞아야 하겠습니다. 애청자들과 그때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따라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중에 주님을 맞이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